조계종 분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또다시 충돌이 빚어졌다. 이번 충돌로 사람들이 다치고 조계사 법당 일부가 불타는 등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장면을 연출해냈다. 대부분 불자들은 이번 사태를 해결할 뚜렷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사회 각계에서 승가의 참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이상 나빠질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모든 승가가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참회하는 것밖에 없어 보인다. 부처님께서는 "참회하면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참회와 관련한 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이렇게 들었다

참회 때를 놓치지 말고 참회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이 바로 자신을 돌아보아 참회할 때이니라. 때를 놓치지 말고 참회하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허물이 있을 지라도 곧 스스로 그것을 고치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니라. 내 가르침은 넓고 커서 큰 허물이라도 용서하나니 지금 참회하는 것이 좋다." 〈증일아함경〉

▩온갖 부처님께서는 늘 이런 말씀을 설하셨다. "두 착한 법이 있어서 능히 중생을 구해 주는 바, 첫째는 참(慙)이요, 둘째는 괴(愧)다. 참이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음이요, 괴란 남을 가르쳐서 죄를 짓지 않게 함이다. 참이란 내심으로 제 죄를 스스로 부끄러워함이요, 괴란 남에게 제 죄를 고백함이다. 그리고 참이란 사람에 대해 죄를 부끄러워함이요, 괴란 하늘에 대해 부끄러워 함이다.

이런 두 말을 합쳐 참괴라 하거니와, 참괴가 없는 자는 사람이라기보다 축생이라고 해야 한다. 참괴가 있는 까닭에 부모·형제·자매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열반경〉

▩수행자들이여, 마음이 삿되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고, 마음이 음탕하려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며, 생각이 악해지려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고, 생각이 부귀해지려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라. 마음을 단속하여 마음이 사람을 따르게 할지언정 사람이 마음을 따르게 하지 말라. 〈불반니항경〉

▩어떤 사람은 한적한 곳에서 욕심으로 악행을 하다가 문득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뉘우쳐 제가 한 일을 남에게 말한다. 마치 까마귀가 더러운 것을 먹고 주둥이를 씻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한적한 곳에서 스스로 악행을 하고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뉘우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마치 돼지가 하앙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곳에 누워 있으면서 다른 돼지 앞에서 뽐내는 것과 같으니라. 〈증일아함경〉

▩비록 무거운 죄를 지었더라도 뉘우치고 다시 범하지 않으면 계율을 따르는 일이 되나니 그 죄의 뿌리가 뽑혀지리라. 〈증일아함경〉

▩말로는 죄를 드러내어 참회한다 하지만 속마음은 진실로 그러하지 못하나니 어떻게 미움과 원망을 버리며 어떻게 착함을 얻겠는가. 〈별역잡아함경〉

▩만약 여러 가지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 일이다. 숨기지 않으면 죄가 가벼워질 것이며, 만약 부끄러움을 느낄 때는 죄가 소멸될 것이다. 〈열반경〉

▩제가 저지른 불선(不善)에 창피한 마음을 지니며, 모든 부처님께 부끄러운 마음을 일으켜, 참괴를 갖추어 육근을 지킨다면, 일체지(一切智)의 마음이 빛나게 갈아지리라. 〈해의보살소문경〉

김민수교수의 백양사일기(45년11~12월)

〈한글맞춤법통일안〉 문법강습

- 1945년 12월1일(토)

1·2교시(9:00~12:00) 계속하여 〈한글맞춤법통일안〉을 공부하고 제3장 문법에 관한 것을 끝냈다. 문법에 관한 것은 받침, 어원(語源) 표시 등 까다로운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 가장 어렵다는 부분이다. 그래서 3교시(1:00~2:30)에는 좀 일찍 모이라고 해서 문법학(文法學)이라는 제목으로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 등 품사 등을 강의했다. 4교시(2:40~4:00)에는 〈한글맞춤법통일안〉 제4장 한자어, 부록 표준어를 가르치고 겨울철 날이 어두워서 조금 일찍 끝냈다.

◇송만암스님으로부터 받은 염주.

강습생들과 백양사 암자순례

- 1945년 12월2일(일)

오늘은 강습생들과 백양사 산내 암자를 순례하기로 한 날이다. 강습생들을 정렬시켜 번호를 부르게 하니 모두 28명(여자 5명)이었다. 쌀과 고구마를 가져온 사람도 보였다.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걸으며 다리가 아프면 바위에 걸터앉아 잠시 쉬어갔다. 큰 나무 밑에서 잠시 쉴 때 오른쪽에 기와집으로 된 운문암(雲門庵)이 보였다.

운문암에 들어서니 오후 1시였다. 운문암에 도착하여 칠성각(七星閣)을 구경하였는데 칠원성군상(七元星君像)이 하나의 합장매듭이라는 설명을 신기하게 들었다.

식후에 이만홍 스님이 운문암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약 1천3백년 전에 창건되었고, 대웅전의 부처님은 까맣게 되어도 금불(金佛)로 할 수 없다는 것, 기묘한 진묵대사(震默大師·1562~1633)의 이야기였다. 운문암을 출발하여 학바위에 올랐다. 아래로 백양사 전경이 보이고 멀리는 무등산이 뿌옇게 보였다. 학바위에 올랐던 다리를 쉴 사이도 없이 걷다보니 말로만 듣던 영천암(靈泉庵)에 이르렀다. 굴 안쪽에서 졸졸 흐르는 샘물 한 바가지를 마셨다. 기막히게 신선한 맛! 그 약물은 피 흐르듯 벌개서 기이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이 샘물은 이곳에 사는 사람 수만큼 나왔었다고 한다. 셋이 살면 세명이 먹을 것이, 손님이 오면 손님의 몫까지 더 나오곤 했는데 심통 나쁜 사람이 많이 나오라고 작대기로 자꾸 쑤시자 피가 나왔고, 그 피가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나와 벌겋다는 것이다.

만암스님 등과 기념촬영

- 1945년 12월6일(목)

오늘 강습은 새로 개정된 애국가를 연습하는 과정으로 들어갔다. 오후에는 강습회 졸업사진을 미리 찍기로 하였다. 대웅전 뒤 탑 앞에서 주지 송만암스님과 함께 모두 38명이 찍었다. 저녁에는 강습생 김동철군이 토론이나 강연회를 하자고 제안하여 큰방으로 모였다. 순서를 정하여 강연을 하기로 했다. 나는 '불교에 대한 나의 감상'을 주제로 20분간 강연했다. 먼저 우리의 종교심이란 오직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떤 절대자의 힘을 원하는 것, 즉 그 절대자를 믿음으로써 그런 고뇌가 해결된다고 믿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종교에 대한 나의 견해를 피력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종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이곳에 와서 스님들을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계속〉

조계종사태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세계가 한국불교 주시 해외전법 노력 반감

미국에 살고 있는 조계종 스님들 조계종사태에 대해 매우 큰 치욕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 미국의 은 언론매체들이 한국에서 일어난 기괴한 사태를 보도했다. 승복입 스님들이 서로 치고받는 장면들 많이 내보냈다.

기사는 이렇게 쓰여 있다. "한국교의 최대종단인 조계종 스님들, 비를 가르치기보다 권력을 위해 우다."

조계종 스님들, 여러분은 알아야 다. 전세계가 여러분을 주시하고 으며, 아니 모든 한국의 불자들을 웃고 있다는 사실을.

외국에서 활동하는 조계종 스님들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전법 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런데 한국에서 일어난 수치스러운 건이 우리의 노력을 반감시키고 다. 종매스님

〈미국 캘리포니아 보광사 주지〉

여론수렴 창구 없기에 조계종 사태 일어난 것

유리창이 모두 깨어진 조계종총무 청사를 보면서 '사부대중'이란 을 되씹었다. 사부대중이 바로 불계 여론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조계종사태는 올바른 여론 렴 창구가 없는 데서 시작된 것이. 조계종 주요 의결기구인 종회에 비구와 비구니만 있을 뿐이다. 더욱이 81명중 비구니는 10명에 불과하다. 결국 종회의 의견은 사부대중 가운데 일부중만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어찌 공의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공의가 설 수 없는 곳에서 권욕과 물욕이 생겨난다. 잘못된 승단의 체계에서 그릇된 스님의 상(像)이 나오게 된 것이다. 스님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한다. 그러나 집착과 망상의 허물을 벗어버린 수행승만이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박갑철

〈원각사 사리탑 보존추진위원장〉

스님들 사회학 배워 종교의 역할 재정립

조계종단의 근본문제는 스님들이 사회를 보는 시야가 너무 좁기 때문이다. 성취욕구의 출구가 종권 쟁취로만 쏠리고 있는 현상이 이를 뒷받침한다. 스님들은 이제부터라도 사회학 공부를 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구조가 어떻게 짜여져 있고, 사회 속에서 불교의 위치는 어떠하며, 사회 갈등의 조정과 해소를 위해 불교와 스님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미래사회의 종교는 서비스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 각 종교의 가르침의 내용을 떠나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기여하느냐가 종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종교학자들의 연구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종교로만 머물지 않는다. 불교를 포함한 종교를 일반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보고 있다.

무명의 재가불자

출가승 본연의 모습 되찾아 수행정진을

조계사사태를 다룬 미국의 주요 방송 뉴스를 접하곤 놀랍고 한심스럽다는 생각뿐이었다.

최소한 불자를 위해, 나아가 국가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앞장서야 할 스님들이 자신의 감정도 자제하지 못하고 일반 폭력배들이나 하는 행동을 한데서야 어디 불교가 바로 설 수 있겠는가. 또 순수한 불자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부처님을 예경할 수 있겠는가.

조계사사태는 이미 세계 모든 불자들에게 알려졌다. 엎질러진 물처럼 긁어 담을 수도 없다. 실추된 한국불교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길은 오직 조계사사태를 잊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출가승 본연의 모습인 수행에만 정진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이승섭(미 뉴저지주 포트 리시)

사태 재발 막기위해 재가불자 용맹정진을

이제는 재가불자들이 새로워져야 한다.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재가불자들이 더욱 용맹정진해야 한다. 열심히 절에 가서 법문을 듣고 무릎이 깨져라 삼천배도 하고, 매일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경전 공부도 하고, 불자들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 그럴 때 폭력승 정치승은 발붙일 수 없다.

스님들 욕을 해봐야 한순간 후련할지 몰라도 스스로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결과가 된다. 이럴 때 우리 스스로의 허물을 돌아보고, 유마거사의 원력을 본받아 참된 재가불자, 수행하는 신도로 매진하는 것만이 이 땅에 불교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김성욱〈경기도 파주〉

각목든 스님모습 보며 가슴답답 울고 싶었다

스님들이 피 흘리고 각목을 휘두르고 불을 지르고 싸우는 모습을 TV로 지켜보면서 답답했다. 아니 울고 싶었다.

IMF는 절약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지만, 많은 불자들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 실직하고 노숙하는 사람들, 점심을 굶는 어린 학생들,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하는 가정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불교가 해야 할 일들이 첩첩산중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피를 흘려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스님들의 각성을 간절한 맘음으로 빈다. 제자리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스님들은 무욕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장혜숙〈주부·경기광명시 철산동〉

끝내 유혈폭력까지 다시는 추태 안보이길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과 불협화음은 끝내 유혈폭력이 난무하는 11월 30일의 극한지경까지 다다르고 말았다. 스님들의 추한 모양새를 매스컴을 통해 접하며 불자로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자비의 종교인 불교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흔히들 소용돌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 볼 여유가 없어서 자신들의 참혹한 모양새를 미처 깨닫지 못한다 한다. 현재 스님들의 싸우는 모습도 그러하다. 너무 한심하고 그 싸움의 목적이 너무 뻔한 것이어서 청정한 승가라고 말하기에 문제가 있는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날의 부질없음을 뼈속깊이 뉘우치리라고 내 스스로를 위로해 본다.

김원만성〈일산 법등사 신도〉

스님들 싸움에 실망 부처님법은 영원하다

요즘 많은 신도들이 스님들의 집단 난투극을 보면서 실망하고 신심을 잃기도 한다. 하지만 도도한 불교의 법맥은 한 시도 끊어진 적이 없다. 수많은 법난과 종파간의 다툼으로 불교가 위기에 처한 적이 많았지만 언제나 정법(正法)이 사법(邪法)을 물리치고 법을 이어왔다.

중국 선종사에서 많은 조사들은 숨어서, 또는 도망다니며 가사와 바루를 이어받았다. 많은 스님들이 육조 혜능스님을 나무꾼 출신이라고 멸시하며, 오조 홍인스님으로부터 전해받은 법맥을 부정하고 스님을 해치려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듯이 사법이 정법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오늘의 조계종 사태 역시, 불교의 또다른 비약을 기약하는 홍역이라 믿자. 설사 종권에 눈이 멀어 잘못을 저지른 스님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언제나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조계종 사태를 계기로 종권의 집중을 막는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진다면 그나마 작은 진보가 아닐까.

김재현〈경북 칠곡군 약목면〉

초의선사 성상

조성 불사 동참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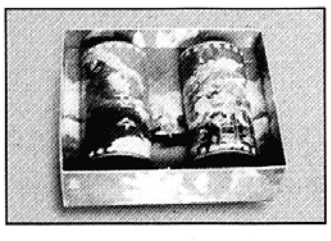
한국의 다성이신 초의선사의 성상을 목불로 조성하여 선사께서 출생하신 전라남도 무안군 생가터에 봉안하고자 합니다. 이 뜻깊은 불사에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을 기원합니다. 점안식은 내년('99년)음력 4월 5일 선사께서 출생하신 날에 봉안하고자 합니다. 불사에 동참해주시는 분들께는 선사께서 생전에 애용하시던 초의다기와 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艸衣禪院長 釋龍雲 合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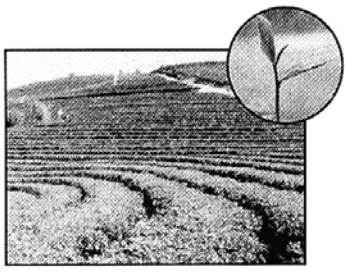
주최 : 초의문화재단
전화 : 02-732-2317
팩스 : 02-732-2319
인터넷 : http:\\www.teancha.co.kr\
국민은행 : 006-01-0452-791
농협 : 053-01-193314
우체국 : 010579-0026125
예금주 전중석

초의문화재단 에서는
무안군에서 주최하는 현창사업에
서 복원되는 생가에 모실
불사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어령 장관시절
문화부에서 선정하여 외국의
국가 수반에게 선물되었던
초의다기와
동참금 200,000 이상



특별한 제다공법으로 완성시킨
100g × 2통
문수차 · 보현차를
동참금 30,000 이상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초의선사 생가복원을 위한 현창사업 소개

1. 초의선사 께서는

대각등계보제존자초의대선사(大覺登階普濟尊者艸衣大禪師)의 사상과 업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차(茶)에 관한 것과, 선(禪)에 관한 것과, 시(詩)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 초의스님을 가리켜 시서화(詩書畫) 삼절(三絶)이라고 하니 이에 대한 연구가 없이는 초의선사를 말할 수 없으리라.(석용운 스님의 '초의선사의 생애와 사상' 중에서...)

2. 5월의 문화인물 초의선사(지난해 1997년)

선사의 탄신 211주년이던 지난해 5월, 문화인물로 선정 되었습니다.

3. 선사께서 수행정진 하시던 일지암

선사께서 옛 인연의 터에 몇 칸 집을 짓고, 못을 파서 달이 비치게 하셨던 일지암, 그 후 소실되어 그 터만 남아있는 것을 용운스님께서 1975부터 복원사업에 진력 하셨습니다.

4. 초의선사 생가복원을 위한 현창사업

초의선사께서 탄생하신 전라남도 무안군(삼향면)에서는 초의 의순 선사에 대한 현창사업을 실시하여 그 정신을 기리고자, '97.4.19(토) 72명으로 현창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생가 복원(무안군 삼향면 왕산리에 7,143) 유허비 건립 (생애, 업적등 기록), 주모각 건립 : 20평(초상화, 유품등 전시) 등의 현창사업을 실시 합니다.

5. 선사의 법손인 용운스님께서는

초의선사 현창사업에 참여하여 생가 복원시 초의선사 성상을 조성하여 봉안 하고자 합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茶山, 秋史, 海居, 申耀등 많은 명사들과 교유하며 그들에게 禪사상을 가르치시고 한국의 차문화 중흥을 도모했던 정신을 계승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정신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고자 합니다.

후원:명차 유통 02-427-7373,4
인터넷:http:\\www.shinbiro.net\~teancha E-mail :teancha@shinbiro.net